

중간 주간에 재발심의 계기로 불교는 날로 새로워지는 종교가 되어야 할 것이다.

두상·무아·반야·보시 등의 의미는 곧 새로워짐의 사상이며, 이를 실천수행하면 반드시 새로워진다. 그러므로 불교사상은 곧 항상 새로워지는 것이 특징이다.

고여있는 물은 썩기 마련이고 죽은 나무는 잎을 피우지 못한다. 불교는 언제나 살아 있기 때문에 변화하고 있고 변화하는 현실을 새롭게 간들기 때문에 무상이라는 표현을 쓴다.

그동안 약간 침체되었던 불교계의 분위기가 지난해부터 개혁이란 새바람을 일으키고 있으며 중도의 열원을 수렴한 종단의 새로운 집행부가 불교 발전의 불씨를 점점 확산시키는 것을 보고 함으로 불교도와 국민은 희망과 기대의 빛이 더해 가고 있다.

사설

깨우침 불씨켜는 계기로

실을 채우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번의 행사는 개혁종단에서 새로운 기지와 알찬 내용으로 중생의 눈을 띄우고 귀를 열어 주는 알찬 행사가 되기를 간곡히 바라는 마음에서 몇가지 제의를 하며 기대해 본다.

의 성불에 앞서 끊어진 밧줄을 잇는 통일법회를 대대적으로 결행하였으면 한다.

둘째, 정반왕의 태자인 고타마 싯달다가 출가한 것은 높은 자리에서 낮은 자리로 내려 온 것이고, 좁은 곳에서 넓은 곳으로 나아 간 것이며, 소아(小我)를 버리고 대아(大我)로 나와 모든 중생과 자연을 벗한 것이

를 돕고 그들의 마음을 위로하여 새로운 삶의 기운을 북돋우는 일을 하였으면 한다.

셋째, 환경보호운동을 대대적으로 벌려 (지구가 썩으면 나도 병든다)는 인과응보를 인식시키고 깨끗한 지구를 만드는 운동의 일환으로 전국사찰에서 열반법회 후 모든 불자가 일제히 쓰레기를 줍거나 거리를 청소하는 환경 캠페인을 벌였으면 한다.

살아있는 불교는 중생과 더불어 승취해야 한다. 중생들의 슬픔과 애환 속에 꽃피지 않는 부처님의 마음은 가식에 불과하다. 이번 <경건 주간>이 중생의 불씨를 일깨우는 내실있는 행사가 되기를 바란다.

다. 참된 불자의 길은 이러한 구사사상을 실현하는 길임을 절감하고 불우한 이웃을 찾아 가야 한다. 출가나 열반은 바로 불우한 이웃과 사회를 같이 하는 일이다. 여기에는 산업현장에서 땀 흘리며 물려있는 노동자나, 무역개발에 불안해하는 농어민들과, 평생동안 그늘에 묻혀 고통받은 청춘을 묻어 애환에 쌓여 있는 종군위안부들

시론

가랑비 수준 넘은 마약복용

예방·재발방지 등 근절대책 절실

마약복용은 근절되어야 한다. 최근 우리사회를 놀라게 하는 일종의 하나는 마약복용의 확산이다. 마약이란 이름 그대로 악마와 같은 악이며 악마가 되게 하는 악이라는 뜻일 것이다.

악마의 특성은 악마라는 표시가 없이 인간을 해치는 것이다. 만약 악마가 악마라는 이름을 달고 나타난다면 사람들은 금방 악마임을 알 것이며 그렇다면 그 악마를 방어하거나 피할 것이다. 그러나 악마라는 표시가 없으므로 악마를 악마인 줄을 모르고 더욱 가까이 하게 되는 것이다.

이런 의미에서 마약도 마찬가지다. 만약 마약이 순수 독약처럼 먹으면 그자리에서 죽어 나가거나 죽거나 불구가 된다 면 이것은 마약이 아니라 독약이 될 것이다. 그러나 묘하게도 마약은 그 나름대로의 매력에 있다고 한다.

마약을 복용한 경찰자의 의하면 대단히 기분이 상쾌해 진다는 것이다. 가랑비 같은 기분이 흥분된 상태로 바뀌고 즉 처진 감정이 상승작용을 하여 대단히 아름다운 상태의 감정으로 변해가는 것이다. 이러한 매력때문에 그것이 마약인 줄을 모르고 먹게 되는 경우가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마약 복용자들은 마약의 폐해에 대해서 잘 알고 있으면서도 마약을 복용하는 이유

성공한 사람들의 불안감에 반하여 나름대로의 실력과 노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회적 인정을 받지 못하거나 실패만을 거듭하는, 소위 운이 없거나 때를 잘못 만났다고 자포자기 하는 사람들도 마약복용의 유혹을 느낄 수 있을 것이다.

청소년까지 확산 우려

둘째, 외적요인으로 산업사회의 만연하는 쾌락종조와 목적만 좋으면 어떠한 방법을 취해도 무방하다는 이기적 가치관의 변화와 이에 따른 갖가지 후속적 부정과 모순을 들 수 있을 것이다. 여기에 가세해서 외국의 잘못된 풍속과 저질문화가 분별없이 수용되며 소득의 증대에 의한 풍부들의 빛나간 향락과 소비관행이 마약에 까지 관심을 갖게 한다고 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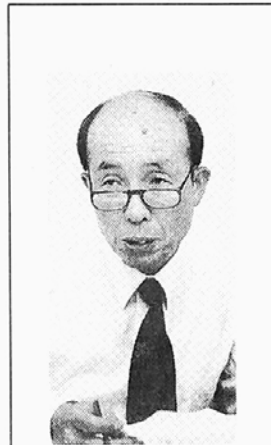
이같은 이유의 근거는 그간의 적발된 마약복용자가 위의 원인과 유사하였기 때문이다. 대개의 마약복용자들은 재벌 2세나 아니면 젊은 성공한 실업인 또는 연예계 종사자, 외국에서 살았거나 외국 출신이 잦았던 사람, 심한 경쟁 때문에 불안과 초조에 쫓긴 사람들이었다.

그러나 근래에 와서 이러한 소수에서 사회 전반으로 파급되어 농촌에까지도 대마초를 피우는 사람들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이같은 마약 복용이 사회전반으로 확산될 우려가 없지 않으며 만일 더 이상 확산된다면 결국 우리 사회는 총없는 전쟁, 적 없는 전사를 피할 수 없을 것이다.

그렇다면 마약복용의 확산을 어떻게 근절시킬 수 있을까. 물론 직접적 대책으로는 적발과 단속, 형벌에 의한 대처가 있을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보다 근원적이고 중요한 것은 계몽과 예방에 있으며 나아가서 재발방지에 있다고 본다.

마약은 이미 마약이 아니라 독약임을 널리 알리고 또 교육해야 한다. 특히 자녀는 어린이나 청소년의 보호를 위해서는 이 마약의 유해성을 교과서에 반영할 필요가 있을 것이며 각종 언론 매체를 통해서 계몽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다시 말해서 단속과 계몽을 결합해야 할 것이다.

아직은 우리나라가 그렇게 심각한 상태는 아니라고 생각되지만 충분한 예방이 취해지지 않는다면, 어떤 위험의 결과를 가져올지 예측할 수 없다. 그러므로 위험은 예방이 제일의 치료방법임을 잊어서는 안될 것이다.



권기종 교수 (동국대 불교문화연구원장)

열린 마당

불교도 경건주간

오성스님



드디어 부처님의 출가와 열반일을 맞는다. 일주일 간격으로 이어지는 불교도들의 명절을 '불교도경건주간'으로 정한 자가 벌써 4년째. 이 기간은 부처님이 고통과 속박의 집에서 나와 자유의 세계로 나아가는 새로운 탄생을 우리는 얼마나 인식하고 있는지 자각해 보는 시간으로 삼아야 하겠다.

“오계지키며 생활 수행 몸에 익히길”

초발심 마음으로 보살행 다졌으면

기해 '깨달음의 사회화'를 선포했다. 이번 경건주간 또한 깨달음의 사회화가 지속적으로 이어지는 기간이 되도록 해야 할 것이다. 금년에도 총무원에서는 각종 행사 기획안을 마련한 것으로 알려졌다. 행사마다 정치 경제 사회의 혼란을 극복하는 부처님의 지혜광명이 사바세계에 비취 지기를 바라는 불교도들의 기대가 크다. 이를 위해서는 신난하고 다양한 행사 프로그램 보다는 승가와 재가가 화합된 전국적 체계적 조직적 전문적 행사가 치뤄져 일한 결실이 있었으면 한다.

현대만평

박구원



부처님 마음으로 더 가까이...

김규대 법사



리고 사회를 되돌아 보고 자신이 할 수 있을 만큼의 보시와 자비정신을 실천해야 하겠다. 따라서 모든 불자들은 이 기간동안에 초발심의 자세로 돌아가 보살의 행위를 새롭게 다짐하는 계기로 삼아야 할 것이다. 또한 물질적 풍요와 경제적 이익에 눈 어두워 있지는 않은지 살펴 겸소하게 생활하고, 자아의 참모습을 찾는 생활수행을 몸에 익히는 기간이 되기를 기대해 본다.

(제주 백련사)

몇년전까지만 해도 불교의 4대명절 중 출가일과 열반일의 의미는 크게 부각되지 않았던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91년 총무원이 경건주간을 선포한 후부터 이 두 기념일을 뜻있게 보내기 위한 교계의 노력이 점차 확대되고 있어 다행스러운 일이다. 출가일에서 열반일까지의 일주일간은 불자가 승가의 문제만은 아닐 것이다. 부처님은 왜 출가해야 했는가. 자신에게 주어진 부귀영화를 집어 던지고 설산으로 들어가야 했던 부처님의 절박한 사정을 우리는 잘 알고 있다. 그리고 출가를 단행한 부처님의 용기가 어떤 의미를 갖는 것인지는 우리는 잘

알고 있다. 다시 출가일을 맞는 우리는 그같은 부처님의 용기와 용모로 보여 준 진리에 대한 갈망을 새롭게 인식해야 할 것이다.

흔탁한 이 사회를 보다 인간답고 보다 청정한 세상으로 만들기 위해서 우리

“청정 세상 만들기 마음의 출가로 동참” 부처님 열반 의미 다함께 되새겨야

리는 몸이 아닌 마음의 출가를 단행해야 할 것이다. 열반일에 대한 우리의 마음도 마찬가지다. 열반은 끝의 개념이 아니다. 열반은 진리의 수레바퀴가 한 번 구르는 연속선 속의 한 단면에 불과하다. 역겹의 연기를 생각해보자. 부처님의 열반은 수많은 중생에게 문화와 연기의 진리를 깨우치게 하는 큰 교훈이 아닌가. 멈출 수 없는 진리의 수레바퀴를 우리를 삼으로 연결 시켜야 한다. 출가일과 열반일을 하나의 기념일로만 생각해서는 안된다. 우리의 삶을 그 위대한 의미로 결부 시키는 실천의 시간이 되어야 한다. 일상 속에서 갖는 '마음의 출가'와 '진리의 끊임'을 일깨우는 경건주간이 될때 우리는 참다운 불자의 자세로 일어 설 수 있을 것이다. (화랑호국사·종령)

심리적 불안이 문제

첫째 내적원인인 마약을 복용하는 당사자의 심리적 상태이다. 이 시대를 살고 있는 많은 사람들은 나름대로의 불안과 초조를 갖고 있다. 치열한 경쟁사회에서 살아 남기 위해서는 계속적인 노력과 자기 방어가 필요하며 항상 어디에서 나타날지 모르는 위기를 의식하지 않으면 안된다. 지속적인 경쟁심으로 긴장하지 않을 수 없는 삶의 연속이다. 내가 얻고 있는 인기가 언제 나를 떠날 것인지 내가 가지고 있는 명예와 부가 언제 사라질 것인지를 예측할 수 없는 불확실한 자신에 대한 조바심이 도사리고 있다. 이같은 긴장의 연속에서 탈피하기 위해서는 술을 마셔야 하고 광적인 볼 놀이를 하고 있다. 그러나 그것으로는 부족하고 해결되지 않는다. 이러한 내적요인이 마약이라는 무서운 모험으로 끌고 가는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물론

대·행·스·님

광복 50주년 대구·경북 지역민과 호국영령을 위한 대법회

초대합니다

부처님 뜻 받들어 중생과 더불어 고행하시는 대행스님의 대구·경북지역민과 호국영령을 위한 큰법회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육신 생긴 게 화두요 내 마음이 화두요 내 생활이 화두이니 화두가 따로 있는 게 아니다 부지런히 뛰는 생활 속에 참선이 있다.

- 일시 : 1995년 3월 12일(일) 오후 2시
• 장소 : 대구실내체육관
• 주최 : 대한불교조계종 한마음선원 대구지원
• 후원 : 대구불교신도회·BBS불교방송 현대불교신문·보훈청·MBC대구 영남일보
• 문의전화 : (053)426-2779

대한불교조계종 한마음선원 대구지원

지원장 혜계 신도회장 김우룡 합장

-대행스님 법어 중에서-

